순례전문가가 들려주는 방방곡곡 절집 설화



절에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
목경찬 지음
담앤북스/1만6800원



▲저자 **목경찬**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유식불교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번역 사업에 참여했으며, 현재 여러 불교대학에서 불교 교리 및 불교문화를 강의하고 있다. 불교문화 대중화를 위해 한겨레문화센터에서 '사찰기행' 강좌를 열었고, 인터넷 카페 '저 절로 가는 사람(cafe.daum.net/templegoman)'에서 사찰 문화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 다가가는 방법〉 〈유식불교의 이해〉 〈연기법으로 읽는 불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정토, 이야기로 보다〉 〈관음신앙, 33개의 나침반〉 〈지장보살, 원력에 스며들다〉 등이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저 부처님은 엉덩이가 제일 멋있어."

신심 깊은 불자라면 "불경스럽다"며 화들짝 놀랄 만한 발언일 수도 있겠다. '세상에 부처님을 보고 엉덩이가 제일 멋있다니….' 저자를 따라 천안 각원사를 참배하며 청동대불을 바라보던 어느 보살님이 남긴 표현이라고 한다. 그 보살님은 어떤 연유에서 청동대불을 보고 엉덩이가 멋있다고 떠올렸을까.

저자는 놀라우면서도 조금은 충격적인 그 표현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당사자에게 묻진 않았지만 알 수 없는 감동을 느끼며 그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첫눈에 보이는 부처님의 엉덩이에 보살님의 삶이 녹아들었을까. 독자에게도 상상을 권유한다.

흔히 문화콘텐츠가 성공하기 위해선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한다. 조금은 거창해보이지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인가? 엉덩이가 멋진 부처님, 바로 그것만으로도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이처럼 〈절에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이야기에 이야기를 더해 절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설화를 전문 이야기꾼이 들려준다.



천안 각원사 청동대불. 사진=이정운 · 채재혁 · 이원호(공유마당)

돌부처님이 들려주는 기상천외한 에피소드부터
숨은 숫자들이 알려주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까지

책의 첫 장인 '돌부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는 여기저기 숨어 있는 부처님들이 품은 기상천외한 이야기부터 흥미진진한 에피소드, 슬픔과 아픔이 함께하는 이야기까지 흥미로운 부처님 이야기를 모아 전한다.

누구보다 잘생긴 얼굴을 자랑하는 남산 보리사의 일명 '장동건 부처님', 얼굴만 씻은 것처럼 몸통은 까맣고 얼굴은 하얀 중원 미륵사지 미륵불, 동선을 따라 걷다 보면 엉덩이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천안 각원사 청동대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곳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다.

두 번째 장인 '열두 동물과 나누는 법담'에서는 전각과 탑, 석등 등 여러 곳에 숨어있는 십이지신 동물들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한다. 특히 자신의 몸을 불속에 내던져 부처님께 공양한 원숭이 이야기나 돼지로 세상에 나온 보현보살 이야기, 깨달음의 순간을 표현한 고양이 밥을 먹은 쥐 이야기는 어렵게 여겨지는 불교 교리를 무엇보다 쉽게 알려준다.

세 번째 장 '사찰 속 숫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서는 일주문, 염주의 개수, 타종 횟수 등 절과 연관된 숫자들을 통해 흥미로운 불교 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한다. 모두 그동안 울산 백양사에서 출간하는 〈백양〉,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서울 봉은사의 〈판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의 〈법회와 설법〉 등에 연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목경찬 작가는 "사찰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는 이야기꾼이다. 고전 이야기도 들려주고, 새로운 이야기도 창작해 재미있게 들려준다"며 "어릴 적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처럼 부처님 가르침이 들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책 속의 밑줄 긋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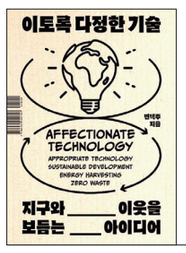
부처님은 보통 사람과 다른 신체적 특징이 있다. 두드러진 모습으로는 32가지 특징이 있고,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면 80가지 특징이 더해진다. 이를 32상 80종호라고 한다. 이 둘을 합쳐 상호라고 한다. 멋들어지게 나투신 부처님을 '저 부처님은 상호가 원만하시다' 라고 표현한다. 가령 경주 남산 보리사 부처님은 불상 연구가 사이에서 '장동건 부처님' 으로 불릴 만큼 상호가 원만하다. – '시대를 닮은 부처님 얼굴' 중에서

아무리 부리부리 부릅뜬 사천왕의 눈이라도 흰 눈자위에 검은 눈동자 모습인데, 칠장사 사천왕의 눈은 거꾸로 새까만 눈자위에 흰 고리눈이다. 흰색이 아니라 검은색 눈자위다. 작가는 검은 눈자위가 신비롭고 무궁한 우주의 광막한 어둠 같기도 하고, 반면에 무명의 깊은 바다 같기도 하다고 느꼈다. 여인의 말하지 못할 고통과 비애를 다 빨아들이고도 남는다고 보았다. 슬픔에 공감하는 모습으로 다가왔다. – '배불뚝이 신장, 슬픈 눈의 사천왕' 중에서

용과 관련된 창건 설화는 금강산 유점사, 경기 여주 신륵사, 전남 장흥 보림사 등 여러 사찰에 전한다. 이러한 설화는 어찌 보면 다른 이가 잘 살던 곳을 스님이 빼앗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설화나 전설은 상상일 때도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을 나타낸 은유일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에 대항하는 용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무렵, 불교에 텃세를 부린 기존 토착 세력이라고 풀이한다. – '용, 상상의 동물이기에는 너무나 가까운' 중에서

이처럼 4대주, 해와 달, 수미산, 욕계천, 색계천 등을 합하여 하나의 세계로 할 때, 천 개의 세계를 소천(小千)세계, 천 개의 소천세계를 중천(中千)세계, 천 개의 중천 세계를 삼천대천(三千大千)세계라고 한다. 따라서 삼천대천세계는 해와 달을 포함한 지구 10억 개의 세계를 말한다. 이러한 삼천대천세계가 갠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이라면 도대체 몇 개일까? – '무량무변한 시공간 속에서 만난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세상 보듬는 따뜻한 손길



이토록 다정한 기술
변택주 지음
김영사/1만6800원

지구별 살림살이 힘쓰는 사람들
생태·평화·배려 가치 세계에 전해

10년 넘게 한 끼에 천 원만 받는 식당,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든 고속도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읽을 수 있는 문자까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으면서도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만날 법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자를 내고 싶은 만큼만 내는 은행, 오줌은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화장실, 값을 매기지 않는 채소 가게,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어떨까.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인류의 번영을 가져다줬지만 한편으론 경제적 풍요 속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는 이웃들이 생겨났다. 더불어 넘쳐나는 쓰레기와 지구를 가득 채운 온실가스로 멸종의 위기를 겪는 우리네 삶까지.

〈이토록 다정한 기술〉은 나만 잘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꿈꾸는 전 세계 사람들이 빚어낸 '살림 아이디어'와 '아우름 디자인' 90여 가지를 꼼꼼하게 소개하고 있다. 시장지상주의가 놓치거나 외면한 것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일을 업으로 삼으며 삶을 일구는 사람들. 이 책은 그들이 결 고운 마음으로 빚은 기술과 아이디어로 가득하다.

저자는 변택주 작가. 패션경영자로 일하며 경영에 관심을 가졌지만 일선에서 물러난 뒤 생태와 평화의 가치를 느껴 이를 알리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다. 불교계에선 오랫동안 법정 스님을 따른 제자로 잘 알려져 있다.

책은 사회에 첫걸음을 떼거나 일거리를 만들어 업을 처음 세우려는 이들에게 전하는 변 작가의 마음을 담았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위해서든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모두가 지구별 살림살이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어 함께 길을 만들어가자는 제안이다.

책의 1부는 '이웃을 보듬고 살피는 아이디어' 10가지를 소개한다. 누구나 50분 아르바이트를 하면 '밥 한 끼' 먹을 권리를 주는 일본 도쿄에 있는 미래식당은 낯모르는 사람과 사이를 잇는다. 아르바이트를 한 뒤 굳이 끼니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받은 식권을 벽에 붙여두고 가는데, 땀 흘려 얻은 권리를 낯모르는 배곯는 이에게 내어주기도 한다.

2부 '지구를 살리는 살뜰한 노력'에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담았다. KK플라스틱은 5년간 연구한 끝에 새로운 분자 구조를 지닌 비투멘을 찾아내 플라스틱 쓰레기를 아스팔트로 탈바꿈시켰다.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반 수준. 인도 정부는 KK플라스틱이 개발한 비투멘으로 벵갈루루에 2000㎞가 넘는 도로를 냈다.

'더 느리게 더 슬기롭게 더 참되게'라는 주제의 3부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배려의 가치를 실천하는 일을 다룬다. 싱가포르에서 어르신과 장애인을 보듬는 '건널목 카드'는 보행신호의 시간을 더 늘려주는 신호등 연장 카드다. 어르신이나 장애인처럼 여리고 힘이 달리는 이들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신호등에 붙어 있는 단말기에 카드를 대면 건널목 길이에 따라 보행시간이 짧게는 3초에서 길게는 13초까지 늘어난다.

변 작가는 책에서 "예수님도 열두 제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과 더불어 길을 냈고, 부처님도 천이백 아라한과 많은 이를 아울러 길을 냈다"면서 "몇몇이 함께 걸으며 낸 길을 모든 이가 더불어 거닐며 다질 수 있으니 함께 걷자"고 말한다.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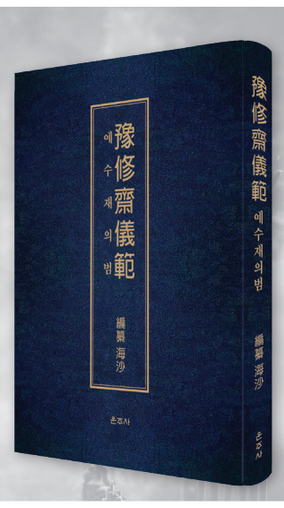
쉽고 재미있게! 불교명상 A에서 Z까지!



불교명상이란 무엇인가? 불교명상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불교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불교명상의 역사와 원리, 실천 방법과 효과까지 폭넓게 다룬 입문서 겸 실천 가이드북!

방경일 글, 정기영 그림/사륙배판/무선/228쪽/값 20,000원

생전예수재 여법하게 지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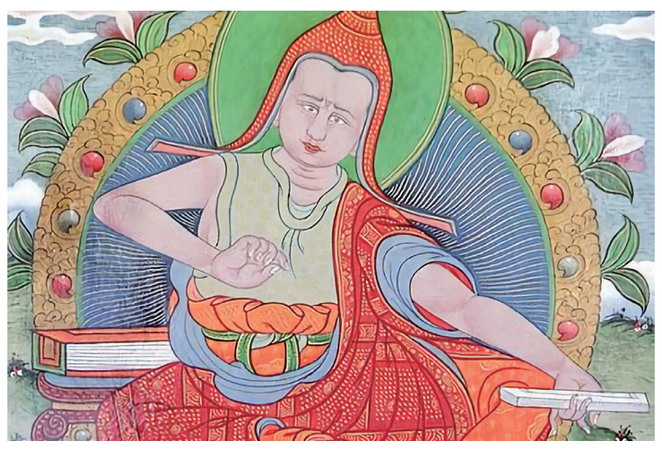


예수재의범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석문의범』, 『요집』, 『수생경』, 『시왕경』,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 및 의식문!

편집 해사/사륙배판/양장/276쪽/값 25,000원

入中論 講解
『중론』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인 월칭보살의 『입중론』 해설서!
입중론 강해



『입중론』은 티베트 불학원의 학승들이 필수적으로 게송을 암기하며 달라이라마 존자도 매일 독송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논서로,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체가 번역, 해설되었다.

월칭 조송/법존 역강/지엄 한역/신국판/양장/408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